

홀덤펍 점주들 “식당보다 더 안전해”

착한홀덤펍점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앞 집회

“음식물 섭취 적고 대화 없어...식당보다 안전”

“정부, 방역 책임 소상공인에게 떠밀고 있나”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홀덤펍이 일반 식당보다 안전하다”며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착한홀덤펍점주연합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홀덤펍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나 뚜렷한 보상 계획 없이 집합금지 6종에 포함시켜 자영업자 가족들의 생계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을 합친 말로,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한다”면서도 “전국에 있는 1000여개의 홀덤펍이 왜 기존 식당들과 달리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전했다.

이들은 “홀덤펍은 음식물 섭취가 적고 손님들간의 대화가 거의 없어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랑 비교해도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들은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종사자들 모두 홀덤펍의 운영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홀덤펍이라는 업종 전체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홀덤펍을 집합금지 대상 6종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지금까지의 영업 금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착한홀덤펍점주연합회 소속 홀덤펍 점주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근조리본을 달고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과 관련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홀덤펍 점주는 “업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홀덤펍을 집합금지 6종에 편입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을 소상공인들한테 다 떠밀고 있는 것인지, 공산국가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

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된다.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서선욱기자

광주도 다중시설 7곳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7개 업종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현행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7개 업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점,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지난 1일 고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5인 이

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대응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

광주시는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감염을 초래할 경우 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 시간 단축도 검토한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백신



점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 시키는 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확진자 속출 나 몰라라’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적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개신교회 교인들이 대면 예

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회 교인 40여 명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치렀다.

광주시는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

진자가 폭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교회 목사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광주 지역 주요 집단 감염원별 확진자 수는 ▲광주 TCS국제학교 124명 ▲안디옥교회 125명 ▲에이스TCS국제학교 47명 등으로 교회 관련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후임병 추행·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2심도 징역 1년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임병(전역)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군인 등 강제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1월 22일 오전 0시께 경기 한 지역 부대 훈련장 숙영막사동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중고물품 사이트나 앱에서 11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 1300장과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가로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체크카드와 선불 유심을 제공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취침 중인 후임병에게 신체적 접촉을 2차례 했다. 후임병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구매 필요성을 이용,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약감정 동료 살해 뒤 월북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평소 약감정을 가졌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0시 37분께 전남 진도군 외국인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동료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숙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사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국내에 머물렀었다. 범행 나흘째 강원 철원 육군 모 사단 초소 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범행 경위·수단·방법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주, 월북하려다 체포됐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을 하고 있지 않은”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B씨의 유족들은 평생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도발 행위가 범행을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 편의점 돌진...50대 여성 운전자 입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음주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광양로터리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유리창과 내부에 있던 물품 일부가 파손됐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